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과 성격유형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재겸¹, 김원종^{2*}

¹김천대학교 간호학과, ²을지대학교 간호대학

The Effects of Resilience and Personality Types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ae Kyeum Lee¹, Won Jong Kim^{2*}

¹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과 성격유형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은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들로 하였고, 자료 수집은 2020년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6.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correlation,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은 평균 3.50점(5점 만점), 성격 유형은 평균 2.28점(4점 만점), 전공만족도는 평균 3.12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총 258명 중 A형 성격유형은 122명, B형 성격유형은 136명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과 전공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A형 성격유형에서 대학생활 만족도, 대인 관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46.2%의 설명력을 보였다. B형 성격유형에서는 학년과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42.5%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대학 생활에서 대인관계를 개선시키고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대학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silience and personality types on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nursing students who were attending two universities in D cit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8 to October 6, 2020. The SPSS/WIN 26.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average recovery elasticity of nursing students was 3.50 points (5 points), personality type was 2.28 points (4 points), and major satisfaction was 3.12 points (5 points). Personality type A was found in 122 people and personality type B in 136 peopl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major satisfaction, which indicates that the higher the resilience, the higher the major satisfaction.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human relationships in personality type A, showing 46.2% explanatory power. In personality type B, it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 in grade and human relationships, showing 42.5% explanatory power. From the above study result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development of a college application program that can improve human relationships and increase resilience in college life is required to inspire major satisfaction.

Keywords : Nursing, Universities, Psychological Resilience, Personality Inventory, Personal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Won Jong Kim(Eulji University)

email: wjtkfd77@eulji.ac.kr

Received February 19, 2021

Accepted June 4, 2021

Revised May 4, 2021

Published June 30, 2021

1. 서론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생애주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생애주기 중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초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학생 시기에는 맡은 임무를 성숙하게 감당하며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준비기간으로[1]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기간으로,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학업 부적응뿐만 아니라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과 대인관계,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 특히 간호학은 학업 성적이 취업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타학과와 견주었을 때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3] 이론교육과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병행, 국가고시 준비에 대한 부담감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 저하를 겪게 된다[4].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중 임상실습은 임상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론적 지식과 근거를 기반으로 숙련된 실무를 경험하는 중요한 학업과정이다[5]. 그러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낮은 임상실습 환경·신체적 피로 및 과도한 학습량 등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어[6,7]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능동적 관리 능력이 곧 학업의 긍정적 효과와 대학생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 개개인의 성격이나 유형을 파악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에 대해 파악과 근거가 필요하며,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에 및 학생 지도에 적용하여 학과 적응력을 높이고 간호학과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생존력을 향상시키고 간호사로서 전문직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8].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해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전공에 대한 만족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데,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소속되어 있는 전공 학과를 비교 평가하여 일치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은 스스로 성격에 대한 강점을 찾아내고 개발해 나갈 때 전공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되므로[9] 본인의 성격에 대한 유형 파악과 확립이 매우 중요한데, 성격이란 사람의 행동성향을 나타내는 사고·감정·태도 등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심리적 특성을 말한다. 성격 유형에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나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미치고, 성격 유형 별로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회복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10], 간호대학생 개개인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여 유형별로 적절한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곧 대학생활에 적응과 전공만족도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을 말하며 곤란에 직면했을 때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능력을 말한다[11].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타고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학습하거나 개발을 통해 증진되어 적용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간호학과 특성상 임상현장에서 실습 스트레스가 많은 간호대학생의 경우[13]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개인의 회복 탄력성이 높을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 및 극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14] 임상실습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많은 학업 양에서 오는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 만족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

국내의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확인한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자기효능감이나 주관적 행복감,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우울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15-17], 성격 유형이나 전공만족도와 관계를 보는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유형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자료와 회복 탄력성 및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부족하여 간호학과 학생지도에 충분한 근거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과 성격 유형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의 지도 관리 시 개별화된 교수전략을 세워 취업 지도, 진로 결정 및 학생 관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본론

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과 성격 유형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2020년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 D형

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여부는 자발적으로 온라인 및 서면에 동의한 경우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중간)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계산하였을 때 202명으로 제시되었고, 탈락율 20%를 고려하여 242명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66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258명으로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회복 탄력성(resilience)

회복 탄력성은 Connor & Davison(2003)의 Connor & 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18]을 변안하여 백현숙(2010)이 타당화한 한국형 코너-데이비드슨 리질리언스 척도(K-CD-RIS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9].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소 25점에서 최대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백현숙(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3$ 의 신뢰도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6$ 이었다.

2.3.2 성격 유형

성격 유형 측정을 위해 Girdano, Everly & Dusek(1990)의 Hart type A척도[20]를 강성군과 장현갑(1996)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1].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scale 4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다. 24-40점은 A형 성격 유형의 특성을 의미하며, 10-23점은 B형 성격 유형의 특성을 의미한다. A형 성격 유형은 경쟁적이고 야심적이며 시간에 쫓겨 서두르는 성급한 성격의 유형을 의미하며, B형 성격 유형은 야망이 적고 이완되어 있으며 시간에 쫓기지 않는 성격 유형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류현미(2003)의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alpha=.73$ 이었다. 또한 오진환(200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2$ 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Lee[22]의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공에 대한 일반적 만족, 인식적 만족, 교과에 대한 만족, 교수-학생 간의 만족의 4개 영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scale 5점 척도의 범위는 최소 18점부터 최대 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6$ 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성격 유형, 회복 탄력성 및 전공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성격 유형, 회복 탄력성 및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 유형, 회복 탄력성 및 전공만족도는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로 확인하였다.
- 5)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5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동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지에는 연구의 참여 목적 및 익명성과 비밀보장, 설문을 거절할 권리와 설문 작성 중에 참여를 중단이 가능함을 기술하였다. 응답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 어떠한 곳에도 사용하지 않으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참여 대상자에게는 설문 참여 종료 후 일주일 이내 소정의 상품권을 발송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대상자

는 258명으로 남자 49명(19%), 여자 209명(81%)이고, 학년은 1학년 71명(27.5%), 2학년 56명(21.7%), 3학년 101명(39.2%), 4학년 30명(11.6%)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125명(48.4%), 만족이 123명(47.7%), 나쁨이 10명(3.9%) 순이었다. 동기부여에서 취업이 110명(42.6%)로 가장 많았으며, 적성 83명(32.3%), 타인의 권유 55명(21.3%), 기타 10명(3.9%)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 유형은 A형 성격 유형이 122명, B형 성격 유형이 136명이었고 회복 탄력성은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동기부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7.911, $p<.001$), 대학생활 만족도는 좋을수록 유의하였고(F=16.495, $p<.001$)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유의하였다(F=51.754, $p<.001$). 동기부여는 취업에 대한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았다(F=3.646, $p=.013$). 전공만족도는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대인관계,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학년은 1학년보다 2, 3,

4학년으로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F=12.768, $p<.001$), 대학생활 만족도가 좋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6.452, $p<.001$). 대인관계는 좋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66.452, $p<.001$) 동기부여는 취업, 적성보다 타인의 권유에 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858, $p<.001$)[Table 1].

3.2 간호대학생의 성격 유형에 따른 회복 탄력성(resilience)과 전공만족도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A형 성격 유형의 회복 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05점이었고,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3점으로 나타났다. B형 성격 유형의 회복 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18점이었고,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7점으로 나타났으며 성격 유형에 따른 회복 탄력성과 전공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1. Resilience, personality type, and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Personality type			X ² (p)	Resilience	t or F(p)	Major Satisfaction	t or F(p)
		Total (n=258)	A type (n=122)	B type (n=136)					
		N(%)	N(%)	N(%)		Mean±SD	Mean±SD		
Gender	Male	49(19.0)	22(8.5)	27(10.5)	.138 (.710)	3.24±.75	1.181 (.239)	3.47±.83	0.644 (.752)
	Female	209(81.0)	100(38.8)	109(42.2)		3.09±.87		3.51±.79	
Grade	1-year ^a	71(27.5)	31(12.0)	40(15.5)	2.479 (.479)	2.72±.57	7.911 ($<.001$) a<b,c,d	3.06±.65	12.768 ($<.001$) a<b,c,d
	2-year ^b	56(21.7)	31(12.0)	25(9.7)		3.32±.88		3.80±.75	
	3-year ^c	101(39.1)	48(18.6)	53(20.5)		3.24±.93		3.66±.83	
	4-year ^d	30(11.6)	12(4.7)	18(7.0)		3.27±.79		3.43±.68	
Religion	Yes	77(29.8)	40(15.5)	37(14.3)	.957 (.328)	3.27±.85	-1.945 (.053)	3.59±.86	-1.167 (.244)
	No	181(70.2)	82(31.8)	99(38.4)		3.05±.84		3.46±.77	
Academic Performance (score)	4.0≤ ^a	40(15.5)	24(9.3)	16(6.2)	10.106 (.006)	3.15±.95	1.134 (.323)	3.56±.86	1.010 (.366)
	3.0~3.9 ^b	196(76.0)	94(36.4)	102(39.5)		3.08±.84		3.47±.79	
	2.0~2.9 ^c	22(8.5)	4(1.6)	18(7.0)		3.36±.66		3.70±.78	
College life Satisfaction	Bad ^a	10(3.9)	6(2.3)	4(1.6)	.693 (.707)	2.50±1.18	16.495 ($<.001$) a<b,c	2.80±.63	23.733 ($<.001$) a,b<c
	Normal ^b	125(48.4)	59(22.9)	66(25.6)		2.88±.78		3.24±.76	
	Good ^c	123(47.7)	57(22.1)	66(25.6)		3.41±.79		3.82±.72	
Human relationship	Bad ^a	45(17.4)	24(9.3)	21(8.1)	3.730 (.155)	2.51±.76	51.754 ($<.001$) a<b<c	2.94±.65	66.452 ($<.001$) a<b<c
	Normal ^b	128(49.6)	65(25.2)	63(24.4)		2.92±.73		3.27±.69	
	Good ^c	85(33.0)	33(12.8)	52(20.2)		3.73±.68		4.15±.59	
Motive	Employment ^a	110(42.6)	56(21.7)	54(20.9)	2.785 (.426)	3.00±.79	3.646 (.013) a	3.36±.77	7.858 ($<.001$) b<a,c,d
	Recommendation ^b	55(21.3)	28(10.9)	27(10.5)		2.96±.92		3.26±.73	
	Aptitude ^c	83(32.2)	33(12.8)	50(19.4)		3.35±.79		3.80±.76	
	Other ^d	10(3.9)	5(1.9)	5(1.9)		3.30±1.16		3.90±1.02	

*a, **b, ***c, ****d

Table 2. Differences in Resilie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by personality type.

personality type	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Mean	SD	t(p)	Mean	SD	t(p)
A type	3.05	.822	-1.206 (.229)	3.43	.806	-1.365 (.864)
B type	3.18	.868		3.57	.791	

(n=258)

3.3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resilience), 성격 유형,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회복 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90, p<.001$)[Table 3].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personality typ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Resilience	Personality Type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1		
Personality Type	-.089 (.153)	1	
Major Satisfaction	.690** ($<.001$)	-.074 (.234)	1

3.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대인관계, 동기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전공 만족도를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 결과 Durbin- Watson 통계량 1.505(A type)와 1.780(B type)으로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

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905-0.980로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18-1.191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A형 성격 유형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 생활 만족도($\beta=.348, p<.001$), 대인관계($\beta=.440, p<.001$)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46.2%였다. B형 성격 유형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beta=.220, p=.002$), 대인관계($\beta=.535, p<.001$)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42.5%였다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 성격 유형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변수들 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 더욱 건강하게 대학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고, 대학생들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회복 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50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남희[23]의 연구에서 4점 만점에서 2.68점, 홍해숙[24]의 연구에서 4점 만점에서 2.42점을 나타내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회복 탄력성이란 개인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인지하고 인정하여 역경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삼는 긍정적인 힘이다[11]. 특히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과는 조금 다른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간호대

Table 4.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Spec.	Type A					Type B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581	.449		1.294	.198	1.249	.274		4.558	$<.001$
Grade	.013	.056	.015	.227	.821	.166	.052	.220	3.215	.002
College life Satisfaction	.478	.094	.348	5.101	$<.001$.157	.101	.111	1.554	.123
Human relationship	.520	.081	.440	6.439	$<.001$.606	.078	.535	7.803	$<.001$
Motive	.029	.126	.016	.223	.816	.092	.055	.111	1.666	.098
F(p)	21.820($<.001$)					25.908($<.001$)				
R ²	.485					.442				
Adjusted R ²	.462					.425				

학생은 이론과 임상 실습의 전공 교과목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임상실습을 하며 낯선 실습 환경과 실습과제 등 실습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기도 한다[25]. 또한 처음 임상실습과 이론수업이 병행되는 시점에 심리적·신체적인 부담과 임상실습 부적응을 경험하며 학업에 대한 열의가 소진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26], 이러한 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상자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과 대학생활 적응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 참여하 258명의 간호대학생들 성격 유형은 A형이 47.3%, B형이 52.7%로 다소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현정[27]의 연구에서도 A형 성격 유형이 54.7%, B형 성격 유형이 45.3%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와 같이 A형 성격 유형과 B형 성격 유형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서 A형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A형이 경쟁적이고 야심이 있는 성격 유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공만족도에서 B형은 학년과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B형이 이완되어 있고 급하지 않은 성격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A형 성격 유형과 B형 성격 유형은 대인관계에는 유의한 영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동기부여라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일반대학생과는 다르게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어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사라는 전문직에 지원동기와 전문적인 목표 의식이 일반대학생과는 차이가 있게 뚜렷하여 내향적, 외향적 성향의 전공을 아울러 모두를 교육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양윤경 등[28]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은 동기부여가 뚜렷하고 전문적 목표 의식이 명확하여 과중한 학업에 대한 부담을 견디고 있다고 하였다. 개인의 성격 유형은 대학생활 적응 정도에 영향을 주므로, 성격 유형에 따라 장점 강화 및 단점 보완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을 높여야 한다[29].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들의 성격 유형에 따른 전공에 대한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관리할 수 있는 지지체계와 제도방안을 위한 실증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12점으로 중간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하부요인들의 각 평균은 졸업 후 진로에 도움 4.0점,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 3.8점, 인지도 높은 전공분야 3.8점, 과목에 대한 교육 만족 3.7점 순 등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오은진[30]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3.79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간호대학생에게 무엇보다 학업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다는 척도라고 생각하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하부요인 중 학업 부담감이 2.8점으로 낮은 것은 간호대학생의 이론과 임상실습의 병행 및 과중한 학업량이 영향[25]을 미쳤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대학생을 우수한 전문의로 인력으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에 대한 이해도를 고취시키고 학생 개인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과중한 학업 부담감과 다양한 임상실습의 어려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차원의 실질적인 대처 지원체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자신의 성격 유형을 잘 인식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성격 분석을 통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수자 면담, 전공 만족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 개발,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실제 임상과 유사한 환경을 구성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 등 유사 학습과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아야 한다. 또한 성격 유형에 대한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보다 참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비교 및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회복 탄력성, 성격 유형과 전공만족도는 보통 이상인 것으로 사료되며, 변수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전공만족도는 학년, 대인관계 및 동기부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형 성격 유형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beta = .348, p < .001$), 대인관계($\beta = .440, p < .001$)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46.2%였다. B형 성격 유형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beta = .220, p = .002$), 대인관계($\beta = .535, p < .001$)로 나타났

며, 전공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42.5%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실제적으로 과중한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임상 실습의 어려운 환경을 겪는 간호대학생에게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회복 탄력성과 성격 유형 분석,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개인의 성격 유형을 고려한 회복 탄력성 고취 방안을 모색하여 최종적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의료 전문직으로 우수한 간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D시 소재하는 2개 4년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추후 연구대상자를 확대 적용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어야 하며, 성격 유형의 분류를 MBTI 성격 유형,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검사 등으로 다르게 분류하여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법 개발과 학생 지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J. Y.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Identity,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s thesis, Daejin University, Gyeonggi-do, Korea, 2015.
- [2] G. Y. Lee, T. W. Choi, Y. S. Lee, "Stress Effects on employment of college students college life,"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vol. 6, no. 2, pp. 197-209, 2015.
DOI: <http://dx.doi.org/10.20434/krcm.2015.08.6.2.197>
- [3] M. R. Jung, E. Jeong,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6, pp. 414-423,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6.414>
- [4]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12-322, 2012.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2.18.2.312>
- [5] S. Y. Han, S. J. Choi, B. G. Choi et al, "Association of nursing activity participa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with career maturity during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4, pp. 337-347, 2020.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20.26.4.337>
- [6] K. S. Han, Y. K. Yang,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s of nursing,"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2, no. 1, pp. 23-33, 2014.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4.22.1.23>
- [7] J. Y. No, "Fatigu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7, pp.345-361, 2016.
DOI: <https://doi.org/10.22143/HSS21.7.3.19>
- [8] M. O. Chae,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303-311,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4.303>
- [9] M. Y. Mun, S. Y. Hwang, "Impact of Character Strengths o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8, pp. 403-418, 2016.
URL: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6128695>
- [10] N. H. Cha, "Learning Ability and Stress by Character Typ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2, pp. 6257-6264,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12.6257>
- [11] J. H. Kim, "Resilience", Wisdom House Inc., Republic of Korea, pp. 50-53, 2019.
- [12] L. J. Thomas, S. H. Revell,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6, pp. 457-462, 2016.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5.10.016>
- [13] Y. H. Yang, E. M. Kim, M. Yu, S. M. Park, H. Y. Lee,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7, no. 3, pp. 337-346, 2015.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5.27.3.337>
- [14]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67-276, 2011.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1.17.3.267>
- [15] J. S. Lee, R. W. Kwon, Y. K. Lee, G. J. Hong, "Effect of Self-Efficacy, Resilience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on Subjective Happiness," The Journal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vol. 4, no. 4, pp. 63-74, 2020.
DOI: <http://dx.doi.org/10.37181/JSCS.2020.4.4.063>
- [16] M. J. Shin, Y. E. Chun, "Convergence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2, pp. 19-32,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2.019>

- [17] Y. E. Lee, Y. N. Jang, "Effects of Exposure to Violence During Clinical Practicum, Self-esteem and Resilience on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8, pp. 646-657,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8.646>
- [18] K. M. Connor, J. R. T. Davison,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vol. 18, no. 2, pp.76-82, 2003.
DOI: <http://dx.doi.org/10.1002/da.10113>
- [19] H. S. Baek,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K-CD-RISC)*,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Korea, pp.28-29, 2015.
- [20] D. A. Girdano, G. S. Everly, D. E. Dusek, "Controlling stress and tension. : A holistic approach,"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USA, 1990
- [21] H. K. Jang, S. G. Kang, "Stress and mental health", Seoul: Hakjisa Inc., Republic of Korea, 1996.
- [22]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55, 2004.
- [23] N. H. Kim, S. Y. Park,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Resilience of Student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3, pp. 194-202,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3.194>
- [24] H. S. Hong, H. Y. Kim, "Effect of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2, pp. 221-234, 2016.
DOI:<https://doi.org/10.35873/aimahs.2016.6.2.024>
- [25] I. S. Jang, "The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7, no. 3, pp. 749-761, 2016.
DOI: <https://doi.org/10.7465/ikdi.2016.27.3.749>
- [26] M. J. Ahn, A. Y. Kang, Y. A. Kim, et al, "Comparison of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Burnout, Stress, and Social Support by Grad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30, no. 2, pp. 113-123, 2017.
DOI: <https://doi.org/10.15434/kssh.2017.30.2.113>
- [27] H. J. Lee, H. S. Min, "The Influential Factors on Compassion Fatigue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 21, no. 3, pp. 236-245, 2014.
DOI: <https://doi.org/10.5953/JMJH.2014.21.3.236>
- [28] Y. K. Yang, K. S. Han, M. H. Bae,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2, no. 1, pp. 23-34, 2014.
DOI: <http://dx.doi.org/10.17547/kjsr.2014.22.1.23>
- [29] M. R. Lee, H. S. Jeon, "Personal types, Ego-resilience,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861-8869, 2015.
DOI:<https://doi.org/10.5762/KAIS.2015.16.12.8861>
- [30] E. J. Oh, J. H. kong, "A Study on Self Leadership,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 7, no. 1, pp. 135-144, 2019.
DOI: <https://doi.org/10.15268/ksim.2019.7.1.135>

이 재 겸(Jae-Kyeum Le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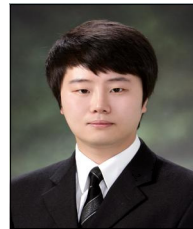
- 2018년 2월 :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20년 9월 ~ 2021년 2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겸임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박사과정)
- 2021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스트레스, 음악 중재

김 원 종(Won-Jong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9년 2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2019년 2월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삶의 질